

## 2023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환영사

보험연구원 원장 안철경

바쁘신 중에도 "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" 세미나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보험사 대표님을 비롯한 보험회사 경영진과 금융당국자, 언론인, 보험학계 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삶은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지난 2년은 참 아쉬움이 컸습니다. 보험연구원의 가장 큰 행사의 하나가 '보험산업 전망과 과제' 세미나인데, 여러분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. 오늘에서야 그 아쉬움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2022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점차 해제되고 오프라인 행사가 속속 개최되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었습니다.

그런데 아직도 그 고난의 터널은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.

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이 끝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터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지난 수년간 풀어놓은 유동성이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을 격발장치 삼아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

감염병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물가에 의한 경제적 거리두기로 대체되고 있는 듯합니다.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경기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

보험산업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물가가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위협할 것입니다.

사회복지가 제공하는 최저 수준 이상의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경제적 역할, 즉,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보험산업에 요구할 것입니다.

다른 한편으로,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명분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.

그 선두에 **미국**이 있습니다. 미국의 **인플레이션감축법(IRA)**은 가계의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준다는 명분으로 **친환경** 부문의 **자국 경쟁력 강화**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유럽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.

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의 이런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이며, 이러한 친환경 정책은 보험산업의 **언더라이팅과 투자에 리스크이자 기회**가 될 것입니다.

이렇듯 **2023년 보험산업**은 이전까지 겪어 왔던 ‘저금리, 저성장’시대가 아닌 ‘**고금리-저성장-고물가**’, 그리고 **ESG**가 보험산업에 **새로운 도전과제**가 될 것입니다.

얼마 전 진행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CEO 분들께서 2023년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 등 **국내 경기 불확실성**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.

한편 2023년은 IFRS17, K-ICS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. **부채의 시가평가**는 **경제환경 변화**와 이에 따른 **계리적 기초변화**를 부채평가에 바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**수익성 및 건전성 변동**이 **확대될 수** 있습니다.

따라서 2023년 보험산업은 ①**경기 불확실성과** ②**새로운 제도 도입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**이라는 **당면과제**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.

한편으로 코로나19 기간 대두된 **디지털 혁신, 보험산업의 영역 확장, 기업의 사회적 책임** 등 보험산업의 ③ **중장기 성장기반을 다지는 작업**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.

옛말에 ‘**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떠나는 자 흥하리라**’고 했습니다. 변화와 창조는 변방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중심부에 연연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. 지금은 보험시장의 **경계를 확장**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**지속가능한 사업모형**에 힘을 실어야 할 때입니다.

모쪼록 오늘 세미나가 **길을 떠나려는 보험경영인** 여러분의 생각을 다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.

감사합니다.